



# 세계최초 CDMA상용화 10년 '移通혁명'

국내 3800만 · 전세계 2.8억명 사용 ... 진화 지속

국내 IT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꼽히는 CDMA 상용화. 그 역사적인 CDMA 방식 디지털 이동전화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지 올해로 정확히 10년이 지났다.

CDMA방식을 무선통신에 도입하기로 했던 결정은 미지의 기술에 도전해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선택한 모험이었다.

이를 통해 얻어낸 자신감과 성공경험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은 IT분야, 특히 무선통신 분야의 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CDMA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차레차레 세계 최초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이동통신 시장이 전세계 이동통신 분야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잡게 됐으며, 국내 CDMA 가입자 3800만명(2005년 11월말 현재, 전국민의 약 78%가 사용), 전세계 CDMA가입자 2억8000만명(2005년 3분기 기준)이라는 거대 시장을 창출하기도 했다.

또한 CDMA 시장은 전세계 이동통신 가입자 (2005년 말 약 20억명)의 14% 수준까지 성장했으며, 중국과 인도, 미국 등을 중심으로 현재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앞선 CDMA 이통시장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GSM시장까지 개척해, IT강국 대한민국의 휴대폰은 반도체를 잇는 대표적인 수출효자 상품으로 자리잡게 됐다.

이처럼 정보통신부와 민간기업, 그리고 연구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해 '96년 세계최초로 개척한 CDMA라는 분야는 지난 10년간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그리고 수출신장을 통해 산업/경제적 측면의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필수품이 돼버린 휴대폰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휴대폰이 더 이상 단순한 정보통신 기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하나의 존재가 되었다는 점이다.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휴대폰 번호를 먼저 알게 되고, 누군가를 잊고자 할 때도 그 사람의 휴대폰 번호를 먼저 지우게 됐다.

휴대폰 알람으로 잠에서 깨어나고 휴대폰 시계로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고,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에 든다.

#### CDMA 세계최초 상용화 연혁

1996년 1월 3일	첫번째 CDMA가입자 가입
1996년 4월 12일	서울 및 수도권 지역 CDMA Digital 이동전화 상용 서비스 개시
1999년 8월 16일	IS-95B (2G) 상용화
2000년 1월 1일	Analog 서비스 중단
2000년 10월 1일	CDMA-2000 1X(2.5G) 세계 최초 상용서비스 개시
2002년 1월 28일	CDMA-2000 1X EV-DO (동기식 IMT-2000, 3G) 세계 최초 상용서비스 개시(인천)

휴대폰으로 버스를 타고,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고,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고, 휴대폰으로 세상과 통하는 세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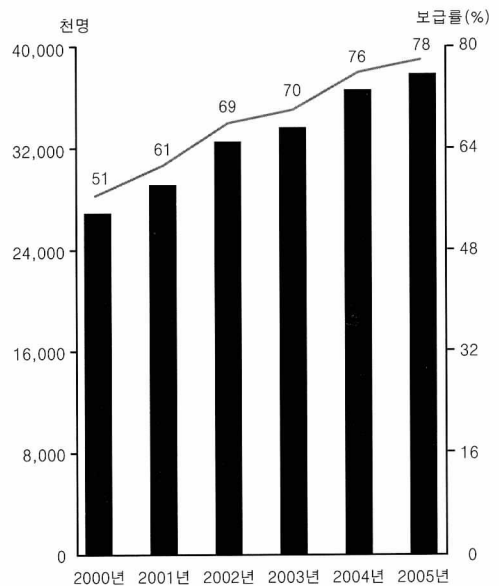
지갑을 두고 오는 것보다 휴대폰화를 놓고 왔을 때 더 불안

한 마음을 갖게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처럼 휴대폰은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을 확연하게 바꾼 계기가 되었으며, '언제 · 어디서나, 내가, 누구와도' 통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DMA로 유발된 국내 휴대폰 산업이 전국민의 생활패턴마저 바꿔버린 것이다.

한국(CDMA방식) 이동전화 가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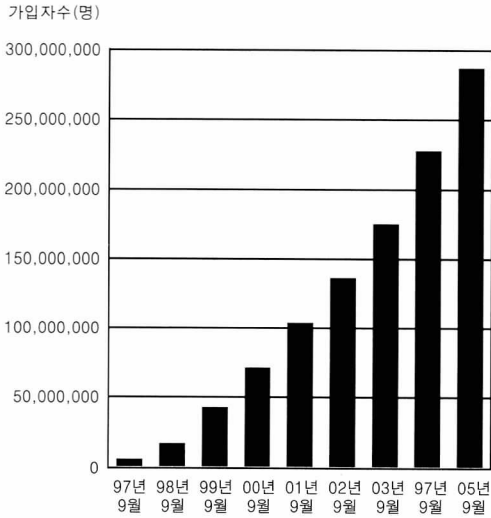


※출처: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 이동전화 가입자수

연도	가입자수	보급률
2000	26,816	59%
2001	29,046	61%
2002	32,342	68%
2003	33,592	70%
2004	36,586	76%
2005	37,788	78%

전세계 CDMA 누적 가입자수



출처:CDMA Development Group (www.cdg.org)

전세계 CDMA 가입자수 (누적)

연도	전세계 CDMA 가입자수(명)
97년 9월	4,250,000
98년 9월	15,990,000
99년 9월	41,140,000
00년 9월	71,002,000
01년 9월	103,184,000
02년 9월	134,900,000
03년 9월	174,050,000
04년 9월	226,770,000
05년 9월	285,700,000

※ 출처: CDMA Development Group (www.cdg.org)

## 향후 10년은 컨버전스 화두

'06년은 통신산업에 있어서 큰 변혁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CDMA 기술이 지난 10년간 이동통신 산업과 경제를 키워 온 큰 축이라면, 향후의 10년은 새로운 네트워크(HSDPA, WiBro)와 기존 네트워크의 적절한 배합과 운용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시작된 유선과 무선통신의 컨버전스, 나아가 방송, 금융 등 이종산업간의 컨버전스가 또 하나의 큰 축이 될 것이다.

먼저 이동통신사들이 HSDPA를 도입하며 WCDMA활성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대용량의 무선인터넷 데이터를 고속으로 받는 것은 물론이고 고속으로 전송하는 것까지 가능해져 기존의 무선인터넷 이용패턴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또한 SK텔레콤, KT가 와이브로를 상용화하면 노트북/PDA 등 비교적 큰 화면을 통해서도 이동중에 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최근 몇 년 동안 화두가 되어온 컨버전스 서비스와 산업이 자리를 잡게 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특히 디지털음악 포털(멜론, 도시락, 빅스뮤직 등)의 확산과 더불어 유료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상용화된 위성DMB와 지상파DMB서비스의 확산과 더불어 TV라는 기기의 개념 자체가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는 물론이다.

디지털홈 서비스(BcN: 광대역 융합 네트워크)의 상용화와 가정내 멀티미디어센터 역할을 하게 될 차세대 PC의 보급으로 인해, TV를 사용하듯 쉽고 간편하게 인터넷에 접속해 디지털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디지털 시장'이 한층 강화될 것도 확실하다.

향후의 통신시장에서는 새로운 네트워크의 출현보다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또한 카메라와 MP3P, TV 등이 이미 휴대폰에 통합된 것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휴대폰은 점점 더 컨버전스형 복합기의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이 확실시 된다.☑

글 | 심우성 기자(아이티타임스, wsung@itn.co.kr)